

유로존 소비자물가: 헤드라인 2.9%로 올랐지만 에너지 영향이 크고 서비스물가 3%대 고착이 핵심

2026.08.19 · AI Engineer 조재운 jaeun.jo@daishin.com



유로존 7월 소비자물가 확정치가 발표됐다. 헤드라인 상승률은 2.9%(전월 2.8%), 근원물가는 2.5%(2.4%), 서비스물가는 3.3%(3.2%)로 세 지표 모두 소폭 올랐고, 앞서 나온 속보치와 완전히 같은 숫자로 확정됐다. 세 지표가 나란히 목표치 2%를 웃돌며 상승 쪽으로 움직였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는 물가 우려를 키우는 재료로 볼 수 있다.

다만 내용을 뜯어보면 강도는 제한적이다. 이번 달 헤드라인이 오른 것은 사실상 에너지 가격이 실제로 다시 오른 영향이 거의 전부다. 에너지물가 상승률은 8.5%에서 10.3%로 뛰었는데, 전년도 수치를 감안해도 이번에 실제로 오른 폭이 작년보다 훨씬 컸던 것으로 확인된다. 즉 기저효과(작년 수치가 낮아서 상대적으로 커 보이는 착시) 때문이 아니라 실제 가격 상승이라는 뜻이다. 근원물가가 0.1%포인트 오른 것은 반대로 순수하게 기저효과 성격이 강하고, 에너지를 제외한 기초적인 물가 흐름은 세 가지 방식으로 따져봐도 모두 2.2%에서 정체돼 있어 물가 압력이 폭넓게 번지고 있다는 증거는 아니다. 한편 이번 물가 수준에서 정작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매달의 등락이 아니라 서비스물가가 3%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. 서비스물가는 전체 헤드라인 상승률의 절반이 넘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, 이번 달 상승도 여름철 여행·항공 요금이 반복적으로 오르는 계절적 패턴에 가까워 임금발 물가압력이 새롭게 가속했다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. 또한 평균 물가가 오른 것은 회원국 대다수가 물가 상승을 꺾어서가 아니라, 독일·프랑스·네덜란드 같은 비중이 큰 나라들이 한꺼번에 반등했기 때문이며, 실제로는 15 개국의 물가상승률이 오히려 낮아졌다.

정책적으로 보면 이번 자료는 유럽중앙은행이 현재 유지 중인 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갈 근거를 강화하는 쪽에 가깝다. 서비스물가가 3%대에 고착돼 있고 헤드라인·근원 물가 모두 목표를 웃돌고 있어 당장 금리를 낮출 만한 명분은 부족하다. 반대로 추가 금리 인상 쪽 근거도 딱히 보태지는 않는다 — 근원물가 상승은 기저효과, 서비스물가 상승은 계절요인 성격이 강해 새로운 압력의 증거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. 다만 서비스물가가 이미 3%대인 상황에서 에너지가 다시 오르고 있다는 점은, 이것이 임금 협상 등을 통해 물가에 2 차로 옮겨붙는지 여부를 계속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.

앞으로는 9월 1일 발표될 8월 속보치의 에너지물가가 관전 포인트다. 최근 국제유가 급등분이 실제로 얼마나 반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며, 에너지물가가 다섯 달째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회성 급등으로 보기도 어렵다. 아울러 서비스물가의 여름철 상승분이 8~9월 중 정상적으로 되돌려지는지, 그리고 이번 달 근원물가 상승분(기저효과)이 다음 달 사라지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.



과거와 비교 (같은 분류 최근 분석)	
발행일	핵심 메시지
2026-08-19 (이번)	유로존 7 월 소비자물가지수 (HICP) 확정치가 발표됐다. 헤드라인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.9%로 전월 2.8%에서 소폭 올랐고, 코어(에너지·식품 제외) 물가는 2.4%에서 2.5%로, 서비스 물가는 3.2%에서 3.3%로 각각 상승했다. 세 지표가 나란히 목표치 2%를 웃도는 방향으로 움직인 셈이다. 이번 확정치는 지난 7 월 말 발표된 속보치(플래시
2026-07-31	유로존 7 월 소비자물가 속보치(HICP)는 헤드라인이 2.8%에서 2.9%로, 근원물가(에너지·식품 제외)가 2.4%에서 2.5%로, 서비스물가가 3.2%에서 3.3%로 나란히 소폭 올랐다. 다만 이번 상승분이 지난해 낮았던 기저 때문에 부풀려진 것인지, 아니면 이달 실제로 물가가 오르는 것인지는 현재 자료만으로는 가려낼 수 없다. 8 월 19 일 나올 확정치와
2026-07-17	에너지 기저효과 개선으로 유로존 인플레가 3.2%에서 2.8%로 0.4pp 하락했으나, 서비스 인플레는 3.2%로 고착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, 이는 기저효과 순풍은 일시적이고 구조적 임금 압력·수요 강도는 불변임을 시사한다.
2026-07-01	유로존 인플레 2.8%로 하락했으나 이는 에너지 기저효과의 순간적 완화일 뿐—서비스의 경직된 3.2%, 구성별 약화 속도의 이질성, 그리고 향후 기저효과 역풍이 명시적으로 신호하는 바는 현재의 "개선"이 8 월부터 재반전될 가능성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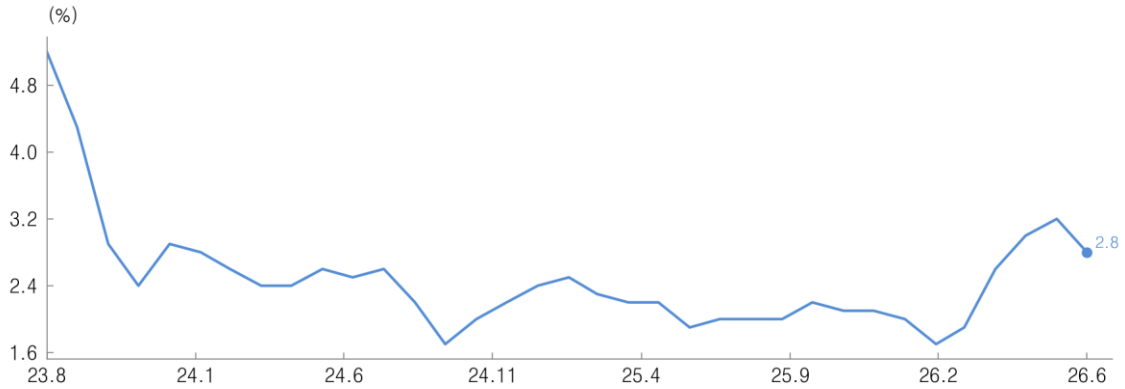
유로존 7 월 HICP 확정치: 헤드라인·부문별·주요국 비교

지표	6 월(전월)	7 월(확정)	변화	맥락
헤드라인 (유로존 전체)	2.8%	2.9%	+0.1%p (전년비)	속보치와 동일, 전월비 +0.2%
에너지	8.5%	10.3%	+1.8%p (전년비)	전월비 +2.7%, 헤드라인 상승 대부분 설명
서비스	3.2%	3.3%	+0.1%p (전년비)	헤드라인 기여도 1.55%p(53%), 여름 계절요인
근원물가 (에너지·식품·주류·담배 제외)	2.4%	2.5%	+0.1%p (전년비)	전월비 0.0%, 기저효과 성격 강화
비에너지 공업제품	0.7%	0.9%	+0.2%p (전년비)	전월비 -2.2%(여름세일), 작년 세일폭 컸던 기저효과
식품·주류·담배	1.5%	1.2%	-0.3%p (전년비)	헤드라인 유일한 하락 기여 항목
독일	2.4%	2.8%	+0.4%p (전년비)	전월비 +0.9%, 대형국 반등 주도
프랑스	2.0%	2.4%	+0.4%p (전년비)	전월비 +0.6%, 대형국 반등 동참

핵심 수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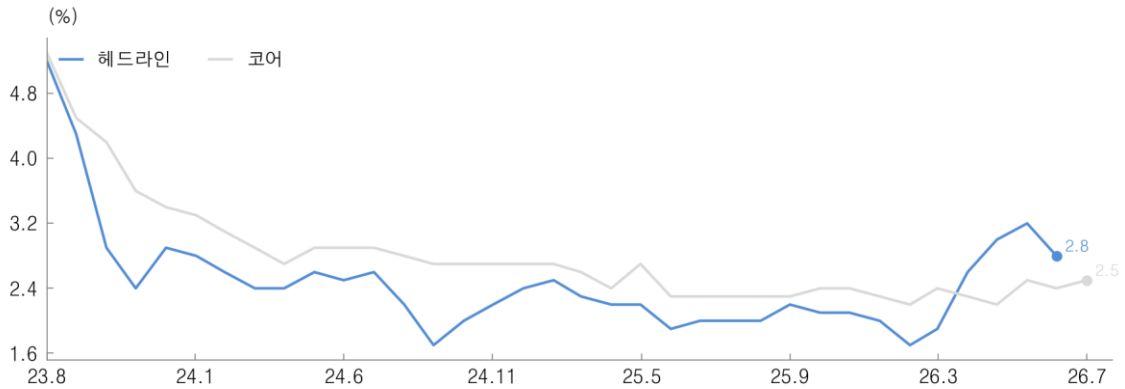
지표	값
HICP 전년대비(%)	2.9

유로존 HICP 상승률(전년비) 3 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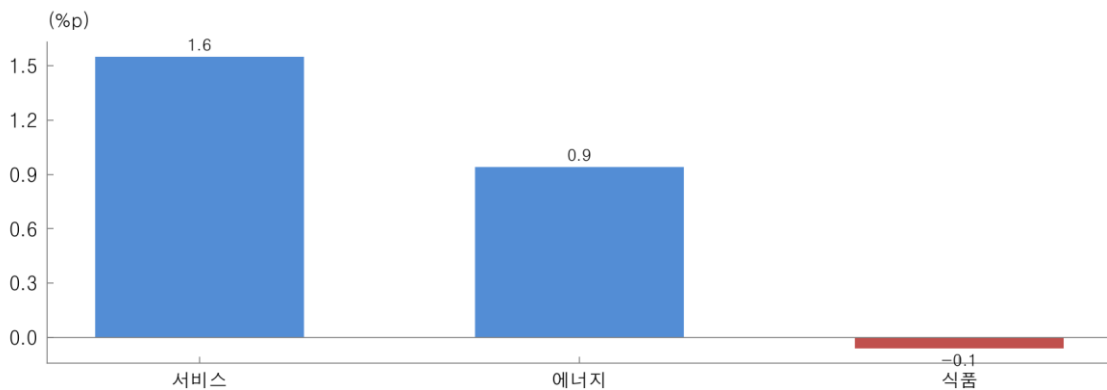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유로존 HICP — 헤드라인 vs 코어(전년비) 3 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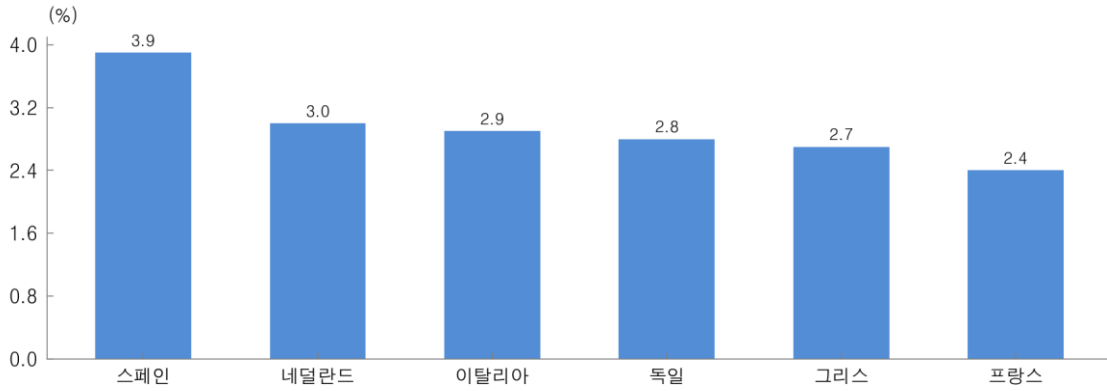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7 월 헤드라인 기여도 분해(품목별, %p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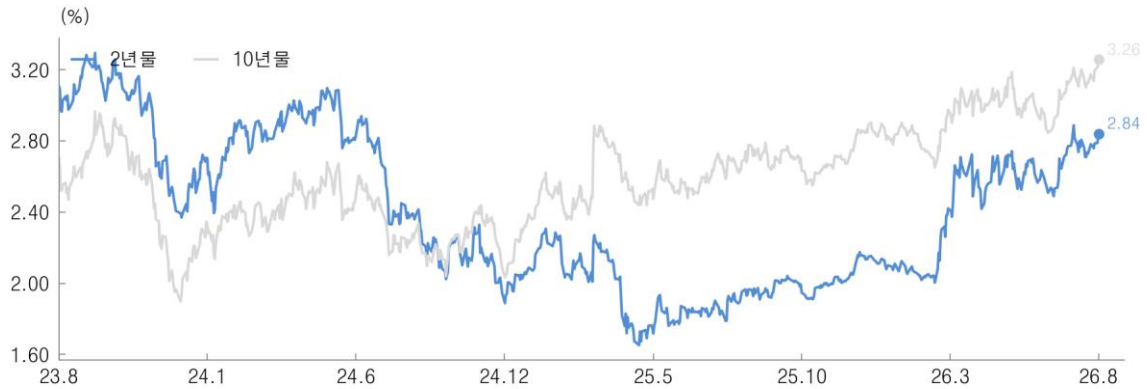
자료: 발표기관 보도자료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주요 회원국 HICP 전년비(7 월,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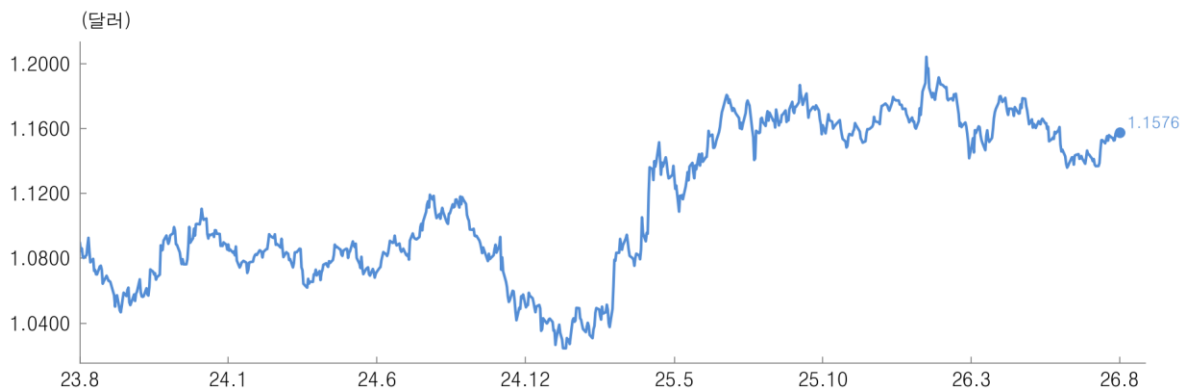
자료: 발표기관 보도자료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유로존 국채금리 (2 년·10 년) 3 년
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유로/달러 환율 3 년
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Compliance Notice

-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(AI)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,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.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.
- AI 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
-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-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,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.